한국전력, 독일 에너지기업 인수

IGCC 기술 보유 코렌테크 검토 ··· 전기·수소·액화석유 생산 가능

한국전력이 독일 에너지기업 코렌테크놀로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기술을 가진 코렌테크놀로지를 인수하기 위해 재정자문기업 선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자문기업으로는 종합컨설팅기업인 삼정KPMG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코렌테크놀로지의 총 자산은 300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한국전력은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렌테크놀로지가 보유한 IGCC 기술은 석탄을 고온·고압 환경에서 가스화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기술로 석탄 원료에서 전기, 수소, 액화석유까지 만들 수 있어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할 차세대 석탄발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조만간 재정자문기업을 선정하고 실사를 통해 기업가치 등을 파악한 이후 인수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5>